

현안리포트 05-002

이라크 총선 이후 경제 · 통상 전망 및 활용전략

2005. 2. 1

KOTRA 해외조사팀

< 목 차 >

I. 이라크 총선 개요 1

1. 총선 개요 1

2. 선거 전망 2

II. 총선 이후 경제 · 통상 전망 5

1. 경제 및 통상 5

2. 주요 경제 정책 7

III. 재건 복구 추진 현황 및 향후 전망 10

1. 추진 현황 10

2. 우리기업의 진출 현황 12

3. 향후 전망 12

IV. 이라크 주변국별 대응 전망 및 시사점 14

1. 사우디 아라비아	14
2. 요르단	16
3. 이란	20
4. 이집트	24
5. 쿠웨이트	27
6. 터키	30

V. 활용전략 34

I. 이라크 총선 개요

1. 총선 개요

□ 법적 근거

- '03.10.15일 유엔 안보리 결의안 1511호 및 04.3.8일 이라크 과도 통치위원회(Governing Council) 제정 임시행정법(Transitional Administrative Law; TAL)에 의한 2005년말 정권 이양 로드맵의 일환

□ 선거 개요

- 1.30일 제헌의회, 쿠르드 지방의회 및 주의회 등 3대 선거 동시 실시
 - 헌법 제정을 위한 제헌의회 275명 선출
 - 쿠르드 자치정부 의회 111명 선출
 - 18개 주정부 의회 748명 선출(바그다드주 51석, 17개주 각 41석)
- 순니파 일부 단체를 제외한 111개 정당에서 7,500여명 입후보
 - 78개 정당 및 무소속을 포함한 111개 단체에서 제헌의회 7,471명, 지방 의회 12,000명이 각각 출마하였으며, 정당별 득표율에 의거 선출
- 2월 6일 이후 잠정결과 발표 전망
 - 1.30일 08:00~17:00까지 전국 5,700개 투표소에서 선거 실시
 - 2.6일경 잠정 결과가 나올 것이며 최종 집계는 2.10일경 발표예상

○ 2월말까지 조각완료 예상

- 제헌 의회 출범 이후 1개월내 [제헌 의회, 대통령 및 2명의 부통령 선출(Presidential Committee; PC)]→[PC, 총리후보 추천]→[제헌 의회, 총리 인준]→[총리, 조각 발표]

2. 선거 전망

- 시아파 종교 연합인 U.I.A와 알라위 총리가 이끄는 시아 세속주의 연합 The Iraqi List가 제1당 경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
- 시아파 최고 성직자 알-시스타니 주도하에 Dawa 당, SCIRI, INC 등 시아파 주력 정당이 연합한 U.I.A(the United Iraqi Alliance)가 169명의 후보자를 등록하였으며, 현 임시정부 알라위 총리 주도하에 INA 등 4개 세속 정당이 연합한 the Iraqi List가 285명의 입후보자 등록
- 양 대 연합이 각각 40석 내외의 의석을 확보하여 제1당 경쟁을 벌일 것이나 어느 당도 과반의석 확보는 불가능하여 연정 불가피

U.I.A. 참가 주요 시아파 정당

The Supreme Council of the Islamic Revolution in Iraq(SCIRI)
1982년 11월 제각기 활동하고 있는 이라크의 이슬람주의 운동을 하나로 결합하기 위해 이란 혁명정부 지원 하에 테헤란서 창설. 바트당에 의해 이란으로 쫓겨난 다와 당 및 무나자맛(Munazzamat) 출신들이 주로 참가. Ayatollah Muhammad Baqr al-Hakim 주도하에 집단 지도체제를 표방하는 정당. 주요 근거지는 이라크 남쪽 시아파 밀집 거주지역이며 1983년 이란-쿠르드 자치지역 국경에 자체 민병조직인 Badr여단 결성. 동 위원회 창시자인 al-Hakim은 종전 직후인 2003.5월 망명지 이란에서 귀국하였으나 같은 해 8월 시아파 성지 나자프에서 차량 폭탄사고로 사망(*Sadr 그룹 리더인 Muqtada Sadr가 살해 혐의를 받고 있음). SCIRI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지지하였으나 전후 미국의 의도에 대해서는 다소 비판적인 태도. 온건 시아파 계열로서 시아 무슬림의 반 서방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는 버팀목. al-Hakim이 사망한 후 동생인 Abdel Aziz al-Hakim이 SCIRI 의장직 승계
Dawaa Party
‘이슬람 부름의黨(the Party of the Islamic Call)’이라는 뜻을 가진 다와黨은 1950년대 시아파 종교 지도자인 아야톨라 Muhammad Baqir al-Sadr(1935-1980)에 의해 시아파 종교 지도자와 국민간의 연결 고리를 만들어 바트당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출범한 이라크 最古의 시아 이슬람 정당. 그러나 1980년 알 사드르를 비롯한 다와黨 지도부가 사담 후세인 정권에 의해 대거 처형 당하면서 급격히 위축 되었으나 2003.3월 이라크 전쟁 이후 재부상. 주요 인물은 당 대변인 Ibrahim al-Jaafari, 시니어 고문 Ezzedine Salim, Sheikh Mohammed Nasserri 등임. 특히 Ibrahim al-Jaafari 대변인은 IGC 멤버로서 2004.6.2일 임시정부 내각의 부통령으로 선출. 한편, 과도 통치위 순회 의장직을 맡고 있던 Ezzidine Salim은 2004.5월 차량 폭탄사고로 사망하였고 Sheikh Mohammed Nasserri는 다와黨 재건의 임무를 띄고 이란 망명을 청산, 남부 이라크로 복귀한 인물. 이라크에서 시아파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는 것이 주요 목적
Iraqi National Congress(INC)
런던에서 수학한 전직 은행가 출신의 Ahmed Chalabi가 창설. 1958년 망명한 Chalabi 의장은 1995년 무장 쿠데타를 기도했으나 미국의 지지철회 등으로 실패. 미 국방부, CIA와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통해 금번 이라크 전쟁을 유도한 인물 중의 하나. 이라크 전후 미국과의 밀월관계를 지속하다가 2004.4월부터 금이 가기 시작. 이란에 비밀 정보를 넘겨준다는 혐의로 미군의 지원 하에 2004.5월 이라크 경찰이 가택 수색을 실시하기도 했음. 부패 혐의도 받고 있으며 이라크 국민들의 지지 미미

○ 차기 총리는 현 알라위 총리 등 3 파전 예상

- 선거 결과에 따라 U.I.A 멤버 Dawa 당의 대변인 Ibrahim al-Jaafari, SCIRI 고문인 Adil Abdel-Mahdi(현 임시정부 재무장관) 및 Iyad Allawi 총리 중에서 총리 선출 전망
- SCIRI 의장 Abdel Aziz al-Hakim이 지원하는 Adil Abdel-Mahdi 재무장관이 유리하다는 설이 있으나, 친미적인 현 알라위 총리가 총리직을 계속 수행할 가능성도 매우 높은 상황

○ 순니파 정당을 제치고 쿠르드족이 제 2당으로 부상할 듯

- 순니파인 Muslim Cleric's Association(무슬림 성직자협회)를 비롯, 이라크 점령에 반대해 온 69개 정당 및 단체가 선거에 불참함에 따라 시아파에 이어서 쿠르드족이 제 2당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
- 따라서 항구헌법 제정시 쿠르드족의 자치권 확대 및 정부 조각시 쿠르드 몫 장관직을 놓고 시아파와 치열한 다툼 예상

II. 총선 이후 경제 · 통상 전망

1. 경제 및 통상

□ SWOT 분석

강 점(Strength)	약 점(Weakness)
• 세계 제2위의 원유, 제 10위의 가스 매장국가 (재건 자금 자체 확보 가능성) • 풍부한 자원 증산 및 개발 여력 보유 (외국인 투자유발 요인)	• 자유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관료들의 경험미숙 및 전문가 부족 • 정치 불안 및 통일국가에 대한 지도자들의 의견 불일치 • 비 석유 산업 기반 미미 • 전력, 통신, 수도 등 사회 기간 인프라 노후화 • 파리클럽의 외채 탕감에도 불구하고, 상환능력을 크게 웃도는 외채 보유
기 회(Opportunities)	위 험(Threats)
• 정권 지도부 및 국민의 개방화 경제 정책 지지 • 아랍권에서 가장 낮은 관세율, 수입 규제철폐 등 자유무역 환경 조성 • 자원분야를 제외한 거의 모든 부문에 100% 외국인 투자 허용 • 미국 184억불 등 선진국의 이라크 재건 지원약속 • 파리클럽 회원국 등의 부채 탕감	• 치안 불안 심화로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시큐리티 비용 증가(사업성 약화) •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장기 투자시 리스크 프리미엄 증대(장기 투자 저해 요인)

□ 시기별 전망

시 기	경 제 분 야 주 요 전 망
05.21~12.31	• 선거 직후에는 치안이 더욱 더 악화 될 것이나 하반기부터 치안력 강화로 인프라 복구 참여기업에 대한 테러 및 주요 인프라 파괴행위 점차 감소 • 신정부는 선거후 민심 장악을 위해 실업을 해소 및 기초 서비스 확대를 도모할 것임에 따라 SOC 예산 조기집행 추진 • 미국을 비롯한 마드리드 원조국 회의 참가 국가들의 대 이라크 인프라 지원 가속화 • 미국은 이라크인 고용을 최대한 늘릴 수 있는 중단기 소규모 프로젝트에, 이라크 정부는 장기 프로젝트에 중점을 둘 것

	• 요인 암살 등 대형 사건이 발생하거나 대규모 군사 작전이 진행 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 수입 및 상 활동은 비교적 정상을 되찾을 것으로 예상 • 임시정부 하에서 보류되었던 원유 및 천연가스 upstream 개발 가속도. 중간급 외국 메이저들이 참가하여 270만b/d 생산, 210만 b/d 수출목표 달성 • 미 군정이 추진했던 무역 자유화 정책을 유지 계승하는 가운데 WTO 가입을 목표로 구 정권하의 경제관련 법률 개정 작업 박차 • 투자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치안 및 정국 불안을 이유로 석유 부문외에 제조업 및 서비스 분야 외국인 투자는 극히 저조 • 대미 환율 \$1 = I.D.1,430 (연도말), 소비자 물가 상승률 4.9% • 2004년대비 GDP 및 수입 각각 39.7%, 35.0%씩 증가
'06년도	• 부가세, 판매세를 비롯하여 사치품에 적용하는 특소세 등을 신설하여 석유에 대한 재정 의존도 인하 시도 • 합헌 정부 출범에 따라 외국 석유 메이저 회사들의 이라크 원유 업스트림 및 다운 스트림 분야 적극 진출(수익 창출 후 국가에 반납하는 B.O.T. 방식) • 원유 Upstream 분야에 있어서 외국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증산 노력으로 연말까지 생산 300만b/d, 수출 235만b/d 목표 달성. OPEC내 영향력 확대 • 기반 인프라 개선, 정국 및 치안 위험 완화추세에 힘입어 국내외 민간 투자 점차 증가. 특히 호텔 등 서비스업, 부동산 투자, 금융 분야 투자자 증가 • 수입 개방정책 기조 유지 • 부실 국영기업 장기임대 및 극히 일부 민영화 시도 • 대규모 인프라에 대한 B.O.T, B.O.O. 등 외국 자본 참여 방식의 발주 증가 • 수출 및 내외국인 투자 유입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GDP 및 수입 증가율 각각 29.6%, 38.5% 달성 • 대미 환율 \$1 = I.D.1,200 (연도말), 소비자 물가 상승률 5.2% • 일인당 국민소득 약 2,300불 달성
'07년도	• 치안 정국 안정에 힘입어 각 부문별 비교적 고성장을 지속할 것이나 대규모 정부주도 프로젝트 발주 감소로 상대적인 성장률은 전년도에 비해 다소 둔화 •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관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근로 소득 및 판매 이윤에 대한 면세 대상을 없앴으로서 전체 세수는 증가 • 수입 개방정책 기조 유지 • 미국, 이라크 정부 주도의 재건 활동은 줄어든 대신 국내외 민간 투자가 이를 대체 하려고 시도 • 석유 및 부동산, 호텔 등 서비스업이 성장 견인 • 석유부문 외에도 은행, 금융 분야 공기업의 수익을 발생시켜 전체 국영 기업으로부터 걷어 들일 수 있는 수익이 재정 수입의 3.6%에 도달 • 외국 메이저 회사들의 적극극적인 참가로 연말까지 350만b/d 생산, 260만 b/d 수출 달성. • 2010년 600만b/d 생산시까지 지속적으로 증산 도모 • 대미 환율 \$1 = I.D.1,000 (연도말), 소비자 물가 상승률 4.1% • '06년 대비 실질 GDP 성장률 17.8% • '08년도 일인당 국민소득 3천불 달성

2. 주요 경제 정책

○ 정부 주도 인프라 프로젝트 조기 집행

- 선거후 민심 획득과 약 30%에 달하는 실업을 인하를 위해 신정부는 약 90억불에 달하는 금년도 SOC 지출 예산 및 미 PCO 재건예산의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 할 것으로 전망

○ 원유 및 천연가스 개발 본격 추진

- 임시 정부하에서 추진이 보류되었던 원유 및 천연가스 부문(특히 upstream)에 대한 외국사의 참여 가능성 증대
 - ⇒ 1.18일 현재 각료회의 상정한 원유탐사, 정유공장 업그레이드 및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 모두 4건
 - ⇒ 그러나 2006년초 합헌정부 출범시까지 외국계 거대 메이저들의 석유자원 개발 참여 가능성이 낮은 편

○ 수입 개방정책 기조 유지

- 사담 후세인 정권하의 폐쇄적인 경제를 글로벌 경제권으로 편입하기 위해 미국 국제개발처(USAID) 주도로 추진 중이며 자국 제조업 기반이 약한 편이어서 신정부도 인플레이 완화에 도움이 되는 수입 자유화 정책을 계승할 것으로 전망됨
 - ⇒ 이미 대부분의 무역 규제가 해제되었고 5% 단일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WTO 조기 가입을 실현하기 위해 국내 상관련 법규를 WTO 원칙에 맞도록 고치는 작업을 본격 진행할 것으로 예상

○ 외국은행이 참여하는 금융 개혁 추진

- 이라크 전후 취한 경제분야 제도 개혁 중 가장 성공한 분야로서

중앙은행 독립성 보장에 이어 2005년부터는 투자자원 조달을 위한 자본시장 육성, 경쟁력 강화를 위한 로컬 은행 통합 및 외국계 은행 지점 개설 신규 허가 조치 단행 예상. 그러나 성공 여부는 경제외적인 요소, 즉 이라크치안 및 정국 안정달성에 달려있음

○ 내외국인 투자유치 인프라 개선

- 약 30%에 달하는 실업율을 떨어뜨리기 위해 새로운 성장 엔진인 민간기업의 역할에 기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사기업 육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인프라 개선에 치중할 전망

⇒ 투자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투자청 신설, 투자보장 협정 체결 등

○ 세제 개편 추진

- 투자 유치를 위해 소득세 및 기업 법인세는 감면할 것이나 근로 소득 및 판매 이윤에 대한 면세 대상을 없앴으로서 전체 세수는 증가

- 2006년중 부가세, 판매세를 비롯하여 담배, 알콜류 및 사치품에 적용하는 특소세 등을 신설하여 석유에 대한 재정 의존도 인하 시도

○ 2005년중 정부 보조금 축소 기대난

- 정부 재정 고갈, 시장 경제 왜곡의 주범인 각종 보조금 지급 축소를 시도할 것이나 실효를 거두지는 못할 듯

⇒ 식품(Food) : 배급이 필요 없는 중산층 이상 고소득 계층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2006년 이후 2년간 약 25%의 비용 절감

⇒ 석유제품(Oil Products) : 연간 71억불~76억불에 달하는 석유 부문 보조금을 국민소득이 향상되는 추이를 보아가며 점진적으로 축소 추진

⇒ 전기/수도(Electricity and Water) : 연간 약 40억불에 달하는 전기료를 국민소득 향상에 보조를 맞춰 점진적인 인상 추진

○ 공기업 민영화, 임대 등 구조조정은 2006년 이후 추진

- 정부 산하 192개 공기업 중 생존이 불가능한 기업부터 청산 내지는 합병하는 안을 검토 중이나 대량 실업을 초래할 수 있는 구조조정에 선불리 손을 대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미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리스크가 높은 공기업 구조조정 미온적 추진 예상

[참고] '03.4월 이후 경제분야 주요 개선 사항

① 법적 장치

- 기업법, 은행법, 증권법, 외국인 투자법, 기금조성법, 공공조달법, 중앙은행 관리법 등 자유주의적 시장경제 전환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프레임 제정

② 재정 부문

- 단일 관세율 제정 및 관세율 인하, 누진 소득세 도입, 공무원 급여 및 연금 인상, 균형 예산 편성, 국채 발행, 지자체간 예산 편중 해소

③ 금융·통화

- 신권 발행, 변동 환율제 정착, 이자율 자유화, 시중은행 자본금 증액, 중앙은행 독립, 재정 적자 해소용 통화발행 금지, 물가 안정

④ 석유 부문

- 3개 국영 석유공사 통합 작업(진행중), 증산목표 달성 실패

⑤ 통신 부문

- 위성방송 허용, 휴대전화 서비스 개시, 유선 전화망 정비

⑥ 전력·상수도

- 전쟁 발발 이전 용량에 도달(3,500MW → 5,400MW) 했으나 전력 수요 증가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음. 상수도 보급률 점진적 확대

Ⅲ. 재건복구 추진현황 및 총선 후 전망

1. 추진 현황

□ 개 요

- 전후 재건복구 예산확보 미흡
 - 반전 국가인 독일, 프랑스 등의 불참으로 세계은행 추산 이라크 재건 수요(약 550억불)의 60%(약 310억불)만 확보
 - 이라크 정부 재정지출을 포함할 경우 SOC 재건 자금 462억불

<이라크 재건자금 총괄('04~'07)>

자금 종류	자금 성격	금 액
미국 자금	• 03.10.30일 미 상.하원이 승인한 이라크 재건자금 184억불로서 미 PCO(Project and Contracting Office) 및 USAID가 관리	184억불
이라크 자금	• UN 식량원조 프로그램(oil for food Program) 잔액 등으로 이루어진 이라크 개발기금 (IDF) 112억불을 비롯, • 석유 수출액, 조세 및 관세 수입 등으로 이루어진 재정 예산 중에서 SOC 투자금액(외국 원조액 제외)	148억불
다국적 원조	• 03. 10.23 마드리드 원조국 회의 참가 73개국, 20여개 국제 조직(World Bank, IMF 포함)으로부터 나온 자금으로서 일본 50억불, 세계은행 30억불~50억불, IMF 25억불~42.5억불, 쿠웨이트 5억불, 사우디 5억불, 영국 452백만불 등	130억불
합 계		462억불

- 치안 불안으로 재건 진도율 매우 저조
 - 최대 원조국 미국의 PCO가 '04.3월 12개 부문 원청업체 선정완료 이후 05.1.12일 현재 1,550개 현장에서 14.8억불의 공사가 진행 중이며, 총 PCO 발주 규모는 104.8억불
 - 일본, 사우디 등 기타 국가들의 원조 진도율 또한 10% 내외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

□ 부문별 추진실적

○ 전 력

- 1월초 5,000MW의 전력을 생산, 전쟁발발 이전 실적을 25% 초과하였으나 국내 총 수요의 71%에 불과하여 일일 12~15시간 단전
- 2006년말 까지 7,000MW 생산, 18~20시간 송전 목표

○ 석 유

- 작년 9월 250만b/d 생산체제를 갖췄으나 저항세력의 사보타지 공격으로 금년 1월초 일일 218만b/d로 감소, 그 중 139만b/d 수출
- 2007년 350만b/d, 2010년 6백만b/d 생산 목표

○ 통 신

- 작년 10월말 현재 유선 전화 96만 라인, 휴대폰 사용자 107만명으로 인구 100명당 유선전화 보급 3.9명. 다이얼-업 인터넷 가입자 10만명
- 초고속 인터넷, 광통신, 전화 보급률 등에 있어서 주변국 수준에 크게 미달

○ 상하수도

- 작년 10월말 현재 상수도 보급률 60%, 하수처리 능력은 15%
- 2007년까지 49억불 투자 필요

○ 보건 및 의료

- 전국 240개 병원, 1,200개 진료소중 340여개 진료소, 병원에 60종에 달하는 필수 약품, 기자재 지원
- 유아 사망률 1천명당 125명 / 의료분야 지원 예산 약 7억불

2. 우리기업의 진출현황

○ 이라크 정부 발주 SOC 부문

- 우리기업의 우수한 기술력, 가격 경쟁력 및 현지에서 쌓아올린 높은 인지도를 감안할 때 자력으로도 충분히 수주 승산이 있는 부문
- 각 부처별로 신규 프로젝트를 꾸준히 발주하고 있으나 치안 악화에 따른 국내기업인의 이라크 입국 금지로 적극적인 응찰활동¹⁾ 기대난
- 공사를 수주하더라도 현 상황에서는 이행이 어렵고 위험부담만 높은 터여서 기업주의 수주 의욕이 낮아 쿠르드자치정부 발주 병원 공사(1건, 28백만불)외에는 수수 실적 전무

○ 미 PCO 발주 SOC 부문

- 하청기준 2,300여 단위 공사 가운데 1,200여 프로젝트 진행 중이나 한국기업이 수주한 공사는 현대건설 2건에 불과
- 아직도 발전, 송.배전, 상하수도, 통신, 항만 분야 하청계약 수주 가능할 것이나 치안악화에 따른 기업주의 수주의욕 감퇴, 기업인 이라크 입국금지에 따른 시공 불가 등으로 실질적인 성과 미흡

3. 향후 전망

○ 치안회복이 재건사업 진도율을 결정하는 큰 열쇠

- 12개 분야별 원청업체 중 최초로 Contrack Int'l Inc.사가 작년 12월 중순 시큐리티 비용 과다를 이유로 철수한 것처럼 치안회복이 이라크 재건사업 진도율을 좌우하는 바로미터

1) 응찰서 작성에 필요한 현지 사전 타당성 조사, 현지 컨소시엄 파트너 발굴, 자재 조달 가능성 파악, 입찰청 관계자 면담

- 2007년도 이전까지 미국 등 추가 원조 기대난
 - 현 진도율로 미루어 당초 2005년까지 집행 예정이었던 미국 원조 자금 184억불은 2006연말에 가야 소진 가능
 - 사상자 증가에 따른 미국 조야 및 국민들의 지지율 저하로 추가 원조 기대난
- SOC 부문에 대한 이라크 정부 재정 기여도 증가
 - 점점 더 외국의 추가원조를 기대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SOC 투자 재원은 원유 수출 수입 등을 활용한 정부 재정으로 대체
 - 이라크 정부, 인프라 재건을 위해 2005~2007년까지 3년간 298억불 (원조 포함)투입 예정(국가 총 예산의 약 28%, 예상 GDP의 33%)

<'04~'08 주요 경제 전망>

	구분\년도	'04추정	'05예상	'06예상	'07예상	'08예상
거시 경제 지표 (※1)	GDP 증가율(%)	21.2	39.7	29.66	17.81	10.23
	GDP(US\$억)	253.2	398.0	581.9	713.5	805.4
	일인당 GDP(US\$)	1,026	1,578	2,252	2,694	2,970
	물가 상승률(%)	10.7	4.9	5.2	4.1	3.15
국제 수지 (US\$10억) (※2)	Core Scenario 총 수출	22.31	24.76	25.04	27.44	N/A
	총 수입	18.00	21.00	23.48	25.60	N/A
	무역수지	4.31	3.76	1.57	1.85	N/A
	경상수지	-2.28	-3.79	-8.81	-9.20	N/A
	Secondary Scenario 총 수출	22.31	24.76	25.04	27.44	N/A
	총 수입	18.00	18.52	19.06	25.60	N/A
	무역수지	4.31	6.23	5.98	1.85	N/A
정부 재정 (US\$백만) (※3)	세출총액	19,926	21,384	28,483	28,358	N/A
	- SOC 지출	4,506	9,087	10,548	19,152	N/A
	(외국원조)	N/A	(4,007)	(6,025)	5,119	N/A
	원유수입	14,175	18,113	24,317	25,716	N/A

자료원 : (※1)World Markets Research Center, 27 Nov.2004

(※2)BMI, The Iraq Business Forecast Report Q1 2005

(※3)The Iraqi Strategic Review Board, 24 Sept.2004

IV. 이라크 주변국별 대응 전망 및 시사점

1. 사우디아라비아

□ 기본 입장

- 이라크 내에 잠입하여 테러 활동에 가담하고 있는 사우디 인이 상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사우디 정부는 이라크와의 국경을 거의 봉쇄하는 한편 북부 ARAR 국경만을 극히 제한적으로 개방하고 있음
- 따라서 사우디는 이라크와의 경제 협력보다는 이라크 임시 정부 수반의 대 사우디 방문 시에 의전 등에서 정통성을 인정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등 정치적인 안정을 지원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
- 미국이나 임시 정부는 사우디 기업의 이라크 내 인프라 건설에 사우디 기업의 참여를 반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우디 정부 차원에서 이라크 진출을 위한 정책적인 대 기업지원책은 전무하며 따라서 사우디 기업은 극히 소수의 소규모 하청 공사를 수주하고 있는 실정임
- 상기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이라크 내에서 사우디 기업의 운신 폭이 좁아 사우디 기업의 대 이라크 비즈니스는 특히 식품과 건축 자재 등 물자 공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물자 공급도 쿠웨이트, 요르단, 터키 등을 경유한 육상 이동으로 경유 국가의 통과료 징수 등에 따라 극히 제한적인 상황임

□ 총선 이후 사우디아라비아의 대응 전망

- 총선 이후 치안이 안정될 경우 :
 - 사우디 정부가 이라크와의 국경을 전면 개방하여 기업들은 기존의

물자 공급량을 대폭 확대하게 될 것이며 이라크 정부가 발주하는 각종 인프라 건설에도 원청 및 하청으로 대폭 참여할 것으로 전망 됨

- 사우디 정부는 대 이라크와의 경제 협력 확대를 위해 300억불에 이르고 있는 재정 흑자의 일부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전대 차관 형식으로 사우디 기업의 인프라 건설 참여를 지원하고 무상 원조를 통해 사우디 식품 및 생필품의 공급 확대 예상
- 따라서 사우디의 대 이라크 수출이 활발해지고 사우디 내 생산품인 철강 제품, 시멘트 등의 인프라 건설 자재, 식품, 생필품 제조에 필요한 원료 및 기계류, 전자 제품 및 부품, IT 제품의 수요가 급증하고 사우디 중고차도 이라크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총선 이후에도 여전히 치안이 불안한 경우 :

- 총선 전의 사우디 - 이라크 관계 지속

□ 시사점 및 우리의 대응책

○ 이라크 인프라 건설 참여를 위한 사우디 기업과의 협력

- 사우디 정부가 차관 제공 형식으로 대 이라크 인프라 건설에 참여할 경우, 사우디 기업의 파트너로서 대 이라크 진출 가능성이 존재함으로 사우디 정부의 향후 대 이라크 정책을 주시해야 함

○ 사우디 기업의 대 이라크 물자 공급 활용

- 철강 제품, 건축 자재, 기계류, 시멘트 등 대 이라크 공급 주요 물자의 사우디 내 수요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사전에 인지하여 수출 기회를 포착하는 기민함이 요구되고 있음

2. 요르단

□ 기본 입장

- 이라크 총선과 그 이후의 정국이 어떤 양상을 보일지에 대해 전망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나 인근국 요르단의 입장에서 볼 때 장기적으로는 이라크가 안정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고 또한 그렇게 유도하려는 미국 등 서방제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음
- 요르단에 있어 주변국의 분쟁사태는 득과 실의 양면을 동시에 갖고 있음
 - 지난 2003년 3월 이라크에서 전쟁이 발발하게 되자 요르단은 최대의 무역파트너이자 원조 지원국인 이라크를 잃게 되었으며 국내원유 수요 연간 약 500만 톤중 절반은 무상으로 지원 받고, 나머지 절반은 구상무역으로 대금을 결제할 수 있었던 기회 상실
- 이번 이라크 총선역시 그 이후의 정국이 어떤 양상을 보이던 요르단은 자신들의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하여 국제사회에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 최대의 목표인 것으로 관측되며 요르단은 전통적으로 주변국의 긴장 상태를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 강화에 활용
- 한편 이라크는 대외교역의 창구로서 요르단 특히 아카바항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으며 대외 수입시 요르단 경유 또는 의존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정국 안정의 경우에는 현재 보다 더 활발한 교역활동이 예상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요르단은 이라크의 대외 교역 창구로서의 지위를 십분 활용할 것으로 전망

□ 총선 이후 요르단의 대응 전망

○ 총선 이후 치안이 안정될 경우 :

- 요르단은 우선적으로 이라크로부터 원유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

⇒ 비산유국인 요르단은 최근 국제 유가 앙등으로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약 2억불의 경상수지 적자가 예상되는 등 원유 확보 문제가 경제의 가장 큰 현안으로 대두

- 아울러 요르단은 이라크 전쟁 발발 이전에 유지하여 왔던 이라크와의 구상무역체제를 대체 할 만 한 다른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예상됨

⇒ 사담 후세인 정권 시절의 전폭적이고 일방적인 지원의 TRADE PROTOCOL은 아니어도 요르단의 대이라크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대안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요르단은 자국기업의 대 이라크 진출지원을 위한 사업에는 비교적 미온적인 면을 보여 왔는데 즉 아카바항 시설 확장, 중고차 수출 지원을 위한 자유무역지대 설치등 대 이라크 재수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지원에는 신속하게 대응하였다고 평가할 만 하나 공공부문이 주도하여 자국기업의 이라크 진출사업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지는 않음

⇒ 이는 자국기업들이 이라크에 진출할 만한 규모나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며 아울러 전통적으로 개별기업간에는 이미 밀접한 연결 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

- 요르단의 대이라크 수출은 2004년 11월 현재 4억 6천만불로 전년 대비 78%가 증가하였으며 재수출 또한 2억불을 상회하여 총수출은 6억 7천만불에 달함으로써 전쟁이전 수준을 상회

- 요르단의 대이라크 주 수출 품목은 식품, 의약품, 세제, 건축자재, 및 일부 전자제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재수출의 경우 중고자동차가 대부분이며 이 같은 대 이라크 수출회복은 현재 이라크의 치안상태 악화에도 불구하고 거둔 실적임을 감안하면 괄목할 만한 실적임
 - 이라크 정국이 회복될 경우 수출 규모는 10억불을 넘어 전쟁이전의 5억불 수준의 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물론 이라크도 정국이 안정되면 수입선의 다변화를 시도할 것이며 자국 항만 시설 확장 등을 통해 직수입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이라크 시장은 정국 안정과 함께 급속도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자동차, 가전일부 및 기초 생필품에 국한된 수입수요가 보다 다양화 되고, 시장도 정상화 될 것으로 전망
 - 이런 점에서 볼 때 이라크 정국의 안정은 한편으로는 이라크의 대외교역 창구로서 요르단의 지정학적 입지가 사라지는 반면 요르단으로서는 새로운 거대시장, 이라크를 곁에 두는 절호의 기회를 맞게 되는 것임
- 총선 이후에도 여전히 치안이 불안한 경우 :
- 요르단의 입장은 이라크가 조속히 주권국가로서 태어나고 정치적인 안정을 이룩하기를 바라고 있으나 이라크가 혼란스러운 정국을 맞이한다고 하여도 요르단의 입장이 바뀌는 것은 아니며 경제적으로는 이라크의 대외교역 창구로서 위치를 지속할 것임
 - 요르단은 이라크의 치안 악화에 대비하여 현재 요르단-이라크간 국경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으며 이는 우선 원치 않는 난민의 대거유입을 방지하고 불순 세력의 유입 또한 방지하고자하는 의도이며 이라크 정국이 혼란으로 치달을 경우 요르단은 국경관리를 더욱 강화 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40만명에 달하는 이라크 난민 문제는 요르단이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는 문제로서 민감 사안이라 할 수 있음
 - ⇒ 이중 상당수는 요르단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기도 한데 부유한 비지니스 맨, 지식인들이 전쟁 전후 그리고 치안악화를 피해 요르단으로 대피한 경우로써 요르단에 대규모 자본유입을 가져왔고, 2004년도 부동산 경기 활황에 큰 요인을 제공하기도 하였음
- 한편 요르단의 대이라크 교역은 확대속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즉 이라크 정국이 정상화 될 경우의 대 이라크 수출 증가율 보다 현저하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나 매년 5 - 6억불 정도의 수출 규모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 이는 이라크 정국이 안정화를 찾지 못하면 스스로 직접 대외교역을 추진할 여건을 당분간 갖추지 못할 것이기 때문임

□ 시사점 및 우리의 대응책

- 이라크 시장 공략을 위한 요르단 활용 전략
 - 대이라크 프로젝트, 건설 진출시 권장할 만한 방안으로서 요르단 건설사를 현지 협력, 또는 하청기업으로 활용
 - 요르단의 건설업체중에는 단순 토목공사 뿐 아니라 기본적인 플랜트 시공 능력이 있는 업체들도 있어 이들과 협력할 경우 현지에서의 노무관리, 자재 조달, 및 기타 현지 시공이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음
- 요르단을 통한 우회수출
 - 대표적인 품목으로 중고자동차를 들 수 있으며 이라크 정부가 2005년 1월부터 중고자동차 연식제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어 5년이 넘은 자동차는 수입이 금지되었으나 승합차, 자동차 부품등 신규 틈새시장을 개발하면 얼마든지 기회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 기타 전 품목에 걸쳐 요르단을 통한 대 이라크 우회 수출 전략은 유망하므로 각종 전시회 사업, 시장개척단 사업을 과감히 시행하여야 할 것임
- ⇒ 국내에서는 요르단이 위험지역으로 인식되어 2004년 하반기 이후 마케팅 사업이 현저 하게 감소하고 있는데 이라크 진출을 포석에 둔 적극적인 요르단 진출이 요구됨

3. 이 란

□ 기본 입장

- 이라크 총선에 대한 이라크 각 종파나 정파, 민족집단간의 이해상충으로 예정대로의 총선 실시 등이 불투명한 가운데 전국민의 60~65%가 이슬람시아파인 이라크의 금번 선거는 사담후세인의 수니파 집권 기간 동안의 정치적 박해 및 소외에서 벗어나 금번 선거가 정치적 재기와 집권에 대한 열망아래 결속을 강화하고 있음
- 현재 이라크에서 영향력을 가진 대표적 시아파 정파로서 이슬람혁명최고평의회(SCIRI)와 이슬람 다와(Daawa)정당이 있으나, 이러한 정파들이 유명 시아파 종교지도자인 동시에 SCIRI 대표인 Abdul al-Aziz al-Hakim의 주도하에 금번 선거를 위해 연대하여 만든 시아파 이라크총연맹(United Iraqi Alliance)이 총 275석을 선출하는 이라크의회에 228명의 후보를 내어 순탄하게 선거가 치러질 경우 과반수 이상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

□ 총선 이후 이란의 대응 전망

- 정치 종교관련
 - 중동 최대의 이슬람 시아파 국가인 이란(국민의 절대 다수)은 과거 사담 후세인 시절 수니파 정권이 집권한 이라크와 8년전쟁(1980~

1988) 과 갈등을 경험한 까닭에 국경을 맞대고 인접한 이라크에 과거 사담 후세인 시절의 수니파 정권이 아닌 시아파 정권이 금번 선거를 통해 창출되기를 기대

- 1979년 호메이니의 이슬람혁명이후 수립된 이란의 이슬람 신정주의 체제는 이라크 이외에도 시리아등을 비롯한 중동지역에 이와 유사한 체제가 널리 수립됨으로서 상호 연대와 결속 및 이란의 정치종교적 영향력 확대를 기대하며 직간접적 후원과 지원을 지속
- 이에 따라 미국을 위시하여 이라크 대통령 Ghazi Yawar등과 요르단 Abdullah왕등은 이란이 금번 선거를 앞두고 시아파 후보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고 심지어 1백만명이상의 이란 종교정치 운동가들이 이라크 국경을 넘어 선전선동과 자금지원까지 하고 있으며, 이는 선거후 이란이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을 포괄하는 시아파 국가들의 새로운 결합 “crescent”(초승달 형태)의 출현을 획책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으나 이란은 이라크 총선에 중립을 지킬 것이며, 이라크 주권을 존중하고 인접국의 정치적 안정이 이란에 중요함을 강조하며 이를 반박
- 금번 총선과 이후의 정국 전망은 불투명하나 이란이나 중동 주변국의 대체적 관측은 시아파가 이끄는 정파의 무난한 승리로 귀결될 것으로 보고 있는 반면, 미국과 요르단 등 일부국가에서는 시아파 과격정권의 탄생시 중동지역에서의 시아파, 수니파의 세력균형이 교란되고 양자간의 갈등증폭, 미국의 이해관계에 대한 도전등 대립과 판도 변화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 실정
- 그러나 시아파의 총선승리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라크내에서의 미국의 영향력과 최초의 민의에 의한 민주주의식 선거결과가 가지는 정통성, 온건파의 대거 등장등의 요인들 때문에 다양한 정파들의 의견수렴과 타협에 의한 정치체제 구축이 불가피하며, 시아파 강경정파들이 주장하는 이란식의 이슬람정통주의에 입각한 신정체제의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봄

- 그러나 이라크내 시아파의 정치적 승리로 중동에서 이란의 입지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미국과의 핵문제에 대한 강경입장으로 이란이 획득하고 있는 중동내에서의 정치적 주도권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임
- 아울러 시아파 정파의 대체적인 입장은 미군등 외국군 철수를 주장하는 만큼 이라크내 총선정권의 탄생시 미국의 개입과 영향력 약화로 이란과의 종교정치적 결속과 교류, 우호관계는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

○ 경제협력 관련

- 이란의 대이라크 경제관계는 기존의 종교정치적 관계의 종속변수로서 지금까지 그 중요성과 비중이 미약하였고, 사담후세인 정권하에서는 대미국 관계에서 비난의 한 목소리를 내는 정치적 프로파간다에는 동조하는 양상이었으나 실제로는 양국이 정치적으로 대립적 관계에 있었고, 동 체제 축출후에는 미국주도하의 현 체제하에서 양국간 경제 협력 확대는 선언적 의미를 가지는 것에 국한됨
- 이란은 자국 경제규모가 크에 따라 이라크에 대한 경제협력 차원의 지원 용의를 계속 표명하여 왔으나 기본적으로 양국의 경제체제가 석유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는 데다, 발전수준도 유사하고 양국경제가 국내 산업화와 내수 위주라는 측면에서 큰 협력관계의 수립이 사실상 곤란한 실정이었음
- 이에 따라 교역면에서는 국경무역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지난 2003/4년 양국 교역량은 6억 8천 4백만불 수준이며, 이중 이란의 대 이라크 수출은 5억 8천 8백만불, 수입은 9천 6백만불로서 교역대상품목도 식품, 가정용품등 생필품과 공업용 원자재, 일부 기계장비, 부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 금번 이라크선거를 앞두고 이란에서 개최된 양국 재무장관회담에서 이란정부는 금번 총선이후 이라크 신정부가 들어설 경우 양국

과의 경제협력 관계 확대를 위한 좋은 여건이 조성되고 앞으로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견해를 표명하는등, 이란은 이라크와의 교역증대, 석유 교환거래(swap)의 활성화, 전후복구사업의 참여, 이라크 경제발전에 필요한 경험 및 지식 전수, 자동차등 기술부문의 이전등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고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

- 이라크 신정부 출범에 따라 예상되는 양국관계는 우선 양국간의 교역이 국경무역 뿐만 아니라 이란의 Khorramshahr(호람샤르)등 인접항구를 통한 비석유제품 수출입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최근 추진되고 있는 양국간 원유교환(swap)거래등 석유 국제유통부문의 협력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

* 원유스왑거래 : 운송비 절감, 양호한 입지의 원유적출 향만이용을 위해 이라크 유전지역에 가까운 이란의 정유공장으로 원유를 공급, 이란이 내수용으로 사용토록하고 그만큼의 물량을 페르시아만에 있는 이란의 석유적출항(하르그섬등)을 통해 이라크바이어(또는 선박)에게 인도하는 거래방식

- 또한 이란이 지난 2003년 합의한 이라크 북부 쿠르드자치지역에 위치한 Soleimanayeh시에 무역센터빌딩을 건설하고 바그다드등 여타 도시에도 이를 건설한다는 계획 이외에 학교, 병원외 도로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양국의 기술, 자본, 원자재, 인력부문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상황에 따라 급속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큼
- 아울러 이란의 대이라크 전력수출과 이라크 석유산업 재건사업을 필두로 한 전후 복구사업에 이란 단독 또는 콘소시움 형태로 참여를 확대하는 등 이라크와의 종교, 정치적 유대관계를 경제에 적극 활용하게 될 것으로 전망

□ 시사점 및 우리의 대응책

- 이라크총선이 시사하는 현 중동의 정세는 중동 종교적, 인종적, 정파적 내부갈등에다 미국등 강대국이 개입하고 있는 복잡한 양상을

떨고 있는데, 아국으로서는 '대미관계의 기본틀 유지' 라는 bottom line 위에서 정치적 보다는 경제적 협력강화와 진출확대에 주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이란과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라크총선의 결과가 어떠한 한국과 이란이 정치적으로는 상호 불간섭, 상호 정치적 입장 및 지위존중이라는 기존의 기조 유지와 경제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라는 선린정책이 지속될 것이며, 이라크내 친이란 시아 파정권이 들어 서더라도 상기와 같은 양호한 대이란관계 때문에 아국과 이라크와의 경제관계 구축이 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임
- 향후 순탄하게 총선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분야에서 이란의 대이라크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 그간 아국의 대이란 가스부문과 플랜트 프로젝트 참여 경험을 활용, 아국과 이란간의 대이라크 석유,가스부문 공동진출, 석유화학분야, 플랜트프로젝트, SOC 구축분야등 전후복구사업에 컨소시엄구성을 통한 공동수주등 우회진출 협력관계 설정이 가능하고 또한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4. 이집트

□ 기본 입장

- 이집트는 매년 미국으로부터 20불 이상의 경제 군사 원조를 수혜 받고 있는 국가로서 기본적으로 미국의 대 중동정책 및 이라크 정책에 대해 소극적 지지 내지는 비판적 지지로 일관하고 있음
- 이집트는 아랍국가 중 가장 먼저 이라크 총선이 "예정대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천명하였으며 이라크 내의 합법적인 정부 설립이 현

재의 치안불안과 무정부 상태를 종식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음

- 이집트는 아랍연맹이라는 아랍세계의 상징적 기관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하게 하고 있는데 최근 수니파들이 투표를 보이콧 하려는 움직임에 제동을 거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금주중에 있을 이라크 총선을 적극 지지하는 입장임

□ 총선 이후 이집트의 대응 전망

○ 외교정책

- 투표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투표결과를 존중하고 이를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 보다 적극적인 외교적인 지원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 지난해에도 언급한바 있는 이라크 경찰이나 군인을 훈련시키기 위한 교관단 파견 혹은 이집트내로 일정 경찰 및 병력을 초청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개시할 가능성도 높음
- 다만 아랍국들의 반감을 사는 군대파병이나 내정문제에의 직접개입은 계속 피할 것으로 전망됨

○ 통상 경제 무역정책

- 이집트가 이라크에 우호적인 제스처의 궁극적인 목적은 경제적 실리확보와 외교적 위상의 강화라고 할 수 있으며 같은 맥락에서 총선이후에는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려는 노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임
- 이미 이집트는 2004년 10월에 이라크 산업부 장관과 경제인단을 카이로로 초청하여 양국간 경제협력 강화의 명목으로 대 이라크 접근을 개시하였으며 2003년 10월이래로 양국기업간 회동 등을 지

속적으로 갖고 있음. 따라서 총선이후에는 각료급 교류는 물론 상공회의소나 각종 경제단체간의 교류를 빈번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이과정에서 상당한 경제적 이권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이라크 원조국회의를 주재한 것처럼 향후에도 유사한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이라크에 대한 우호적 제스처어도 강화할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이집트의 대 이라크 접근은 첫째 전후 복구 및 사회인프라 재건사업에서 이집트 기업들이 입찰수주나 납품계약의 체결 등에 많은 이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 ⇒ 현재 이집트가 이라크내 발주예상 프로젝트 중 적극적인 참여를 고려하고 있는 분야는 발전소 건설, 송배전, 하수처리장, 주택건설, 도로, 철도 복구, 섬유공장 현대화, 유선전화 및 통신망 확충, 건축자재 수출 등의 분야임
- 이집트 기업들의 전반적인 기술수준이 낮아 대규모 프로젝트의 수주에는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 미국이나 영국업체들의 하청을 받아 주로 노동집약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할 것으로 보이며 미국이나 영국업체들 역시 동일 종교와 언어를 구사하는 이집트 업체들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임
- 교역면에서는 이라크 전쟁이전의 연간 20억불 규모의 수출물량의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이며 주 수출품목은 시멘트, 철근 등 건축자재와 각종 생활필수품, 전자조립품, 섬유, 의류, 과일, 면화 등이 될 것으로 보임

□ 시사점 및 우리의 대응책

- 현재까지 밝혀진 이집트 정부의 공식대응은 총선결과에 매우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고 있는 편이나 언론이나 이라크 전문가들은 정

부의 대응태도와는 달리 매우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입장도 보이고 있음

- 따라서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이집트 정부로서는 당분간 자치정부를 옹호하고 지원하는 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여론이나 언론은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아랍권의 정서를 감안하여 아랍권을 자극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아울러 이라크가 보유하고 있는 석유자원이나 시장가치를 고려하여 체계적이고 실리적인 경제 통상 협력관계를 구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예) 주요 부처 및 공기업 대표 방한초청, 이라크 산업연수생 초청 기술교육 및 훈련, 이라크에 대한 의료, 교육원조 제공, 양국간 스포츠교류 행사 활성화, 주요 경제정책 담당자에 대한 인맥구축 및 로비채널 가동 등

5. 쿠웨이트

□ 기본 입장

- 쿠웨이트 정부는 금일 현재까지 총선이 이라크의 국내문제임을 거론하면서 그 결과에 대한 논평을 자제하고 있으며, 일부 지식인들만이 신문기고를 통해 총선이후 이라크내 어떠한 정권이 들어서던간에 인근국과 평화공존하기를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수준임
- 한편, 쿠웨이트 일간지인 쿠웨이트 타임지가 일반인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대부분의 쿠웨이트인들은 총선 결과에 대해

낙관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총선에서 누가 승리하든 관계없이 이라크는 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총선이후 이라크는 안정을 회복할 것이며, 아울러 총선은 미국이 영원히 이라크에 주둔하지 않을 것임을 증명하는 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치러져야 한다고 함
- 반면 비관론자들은 총선이후에도 혼란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

□ 총선 이후 쿠웨이트의 대응 전망

○ 총선 이후 치안이 안정될 경우 :

- 양국간의 국교정상화가 2004.8월에 이루어진 이래 그동안 대사관 설치 지연으로 인적교류 등이 원활하지 못하고 있으나 총선이후에는 이같은 모든 것들이 원활히 추진됨으로써 양국간의 관계는 매우 돈독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다만, 쿠웨이트 정부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양국간 국경선 문제와 자국내 시아파의 입김이 더욱 거세 질것이라는 점임
- 지난 걸프전 이후 UN에 의해 확정된 현재의 국경선을 이라크 신정부가 보장하지 않을 경우 불편한 관계가 계속될 것이며 이는 이라크재건을 위해 국제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부채탕감에도 자국민의 합의도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 쿠웨이트 인구 95만명중 1/3을 차지하고 있고 50명의 국회의원중 5명을 배출하고 있는 쿠웨이트내 시아파는 그동안 소수파로서 목소리를 낮춰왔으나 총선후 강력한 시아파정부의 출현으로 인해 이들의 요구사항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

-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경제 현안은 부채탕감 문제인데 이라크가 쿠웨이트에 갚아야할 부채는 지난 1980~88년사이 이란과의 전쟁시 차입한 부채 160억불과 걸프전 배상금조로 980억불이 있음
- 이중 현재 탕감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이란과의 전쟁시 대여해준 160억불로서, 그동안 쿠웨이트는 이라크 정식정부와 논의하겠다는 것이 공식입장이었기 때문에 총선이후 동건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임
- 이라크로부터의 천연가스 도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 ⇒ 쿠웨이트 국영석유회사인 Kuwait Oil Company(KOC)가 이라크 측 파트너인 South Oil Compnay(SOC)와 협의하고 있으나 현재 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었으나 총선이후 본격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
 - ⇒ 그동안 가스 에너지원 확보를 위하여 카타르 및 이란과 협상에 실패한 쿠웨이트으로서는 이라크로부터의 가스도입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임
- 지정학적으로 이라크시장 진입관문에 위치한 쿠웨이트는 양국 국경개방에 따라 국경을 통한 재수출물량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 현재는 군수품 등 극히 제한적인 물품만 이동하고 있는 실정임
- 총선 이후에도 여전히 치안이 불안한 경우 :
- 정치, 경제, 통상, 무역 등이 현재처럼 답보상태에 있을 것임

□ 시사점 및 우리의 대응책

- 쿠웨이트는 지정학적으로 이라크 진입 교두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총선 결과에 관계없이 쿠웨이트 진출은 대이라크 시장 진입에 중요한 역할 전망

- 이라크와의 교역에 있어 자금과 경험이 풍부한 쿠웨이트 업체들의 영향력은 막대할 것이기 때문에 총선후 안정을 회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사전에 이들 업체들과 파트너 관계를 맺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볼만 함
- 이같은 연유로 인해 영국, 프랑스, 이태리 등 유럽국은 물론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등은 작년 이라크전쟁 이후 계속해서 경제협력 사절단, 시장개척단을 파견하고 있는 상황임

6. 터키

□ 기본 입장

- 과거 20년간 쿠르드 반군과의 유혈충돌로 3만 5천명의 희생자를 낸 경험을 가진 터키는 쿠르드 족의 세력이 조직화되어 하나의 세력으로 등장할 경우 동일한 사태가 재발될 것을 우려하고 있음
- 즉, 1월 30일 선거를 통해 쿠르드 족이 키르쿠크 지역을 중심으로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현재의 터키 남동부 지역의 독립 문제가 대두될 것을 우려하고 있음. 또한 이라크 내전의 발발로 동 지역 거주 터키계 주민들의 인권이 착취당할 것을 우려하고 있음. 이런 점에서 터키 정부는 키르쿠크 지역에 쿠르드 자체 세력의 등장을 전쟁으로 가는 명분이 될 것이라고 누차 강조해 오고 있음
- 또한 이번 선거에서 키르쿠크 지역에 쿠르드 인들이 결집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부당성을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터키의 대응 명분을 쌓는 과정으로 보임

□ 총선 이후 터키의 대응 전망

- 터키는 이라크 선거 후 북부 키르쿠크 지역을 중심으로 한 쿠르드족의 세력화(궁극적으로는 독립국가)에 반대하고 있으며, 동 지역 거주 터키계 주민의 인권보호에 최대의 관심을 보이고 있음. 따라서 쿠르드족이 키르쿠크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는 선거결과가 나올 경우 동지역 침공이라는 최강수를 쓸 것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으나 미국과의 관계, EU가입 협상에 미칠 악영향, 경제적 손실 등의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배제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보임
- 또한 쿠르드족이 강력한 정치세력으로 등장할 경우, 터키 동남부 지역의 쿠르드인들이 동조할 가능성이 높고, 비교적 이동이 자유로운 이라크로의 이동을 통해 테러 집단화하는 등 새로운 국내정치 불안요인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큼
- 어떤 경우든 터키는 북부 이라크에 대한 발언권을 강화하면서 자국이익 보호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됨
- 이라크는 중동국가 중 터키의 최대 수출대상국으로 2003년부터 수출이 재개되어 급증추세에 있음. 이라크는 2004년(1월-11월) 기준으로 터키의 제 9위 수출대상국이며, 23위의 수입대상국임
- 터키의 對이라크 수출규모는 2004년 이라크 전체 수입의 약 10%에 해당

<터키의 對이라크 수출입 실적>

(단위 : US\$ 백만)

	2000	2001	2002	2003	2004(1~11월)
수출	0	0	0	806	1,607
수입	0	0	0	113	430

- 터키는 미국과의 우호관계, 이라크와의 지리적 인접성, 동일 문화 및 종교를 장점으로 이라크 재건사업에 가장 활발하게 참가하는 국가로 건설 하도급, 이라크 주둔 미군기지에 대한 물품공급, 이라크 시장 물품 공급에 적극 나서왔음
- 특히, 주택, 공항, 공공건물, 병원 등 많은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건설자재, 내구소비재, 식품 등의 물자를 공급 하고 있으며 주요 수출품목은 광물연료, 보일러 및 기계, 가구, 전기기계류, 소금, 유황, 시멘트, 철강제품, 플라스틱, 설탕, 야채, 알루미늄 제품 등임
- 이라크 선거 후 이라크 국내정세가 안정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경우, 터키는 재건 사업에 적극 가담할 전망이며, 미국, 러시아 등과의 공조를 통한 공동 프로젝트 수행이 활발해질 전망이며, 육로를 통한 재건물자 공급 역시 급증할 가능성이 높음
- 하지만 터키의 우려대로 쿠르드 족과의 분쟁이 재연될 경우 정치, 군사적 긴장고조로 對이라크 무역이 악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시사점 및 우리의 대응책

- 이라크 안정에서의 터키변수 고려필요
- 이라크 선거 결과에 대한 터키의 관심이 높고, 예측이 어렵긴 하지만 터키가 이라크 안정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터키가 정치, 군사적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키르쿠크 지역의 쿠르드 족이 강력한 정치세력으로 등장할 경우임
- 또한 이 경우 예상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1) 쿠르드계 정당이 키르쿠크 지역 선거에서의 승리를 기반으로 세력화하면서 터키 동남부 지역 거주 쿠르드 인들이 이에 동조하고 2) 쿠르드 족이 키르쿠

크 지역 거주 터키계 주민들을 학살 내지 추방하는 인종갈등이 발생하며 3) 터키가 군대를 파견하여 쿠르드 세력에 대한 소탕작전에 돌입하는 상황임

- 이 경우 우리의 對 이라크 재건 사업 참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이라크 재건 참여에 터키 활용방안 강구

- 인종갈등, 쿠르드 족과의 정치적 분쟁 발생이 우려할 수준이 아닐 경우, 터키는 실리를 택하여 이라크 안정과 이라크 재건 참여를 통한 경제적 실리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높음
- 터키는 주로 건설 하도급 참여와 이에 필요한 건설자재 공급 그리고 육로를 통한 소비재 공급에 적합한 지리적 이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따라서 건설 프로젝트 수행시 터키를 이용하거나 터키를 경유하여 재건물자를 우회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V. 활용전략

- 이라크내 치안 문제는 향후 이라크 진출의 시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총선 이후에도 현지 시큐리티 불안으로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개설 기대난
- 이라크내 치안 안정기를 대비하여 인접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이라크 기업인을 대상으로한 마케팅 활동 전개 필요
 - 또한 이라크 인접국에 지사 설치 및 운영하여 필요시 현지 거래선을 주재지역으로 초청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안 고려 필요
 - 요르단, 쿠웨이트, 터키,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등 접경지역 국가를 발판으로한 전방위적 국가 및 제품 이미지 제고 지속 필요
 - 향후 치안 안정시 이라크내에서 기구축해 놓은 한국 상품에 대한 긍정적인 인지도를 십분 활용, 저가의 중국산 제품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지키기 위한 방안 강구도 시급
- Rebuild Iraq 2005(amman) 등 인근지 개최 이라크 재건 관련 박람회 및 전시회 참여를 통한 적극적인 진출 통로 확보
 - 치안 안정 이후를 대비한 SOC 개발 등 이라크 재건 관련 사업에 대한 정보 수집 노력 필요
- 치안 안정 이후 이라크 정부는 유전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유전 개발 입찰에 적극 참가 필요
 - 이라크 정부가 유전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내년초 합법적인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까지는 엑슨모빌, BP, 쉘 등 거대 메이저보다는 중간급회사들이 참가할 것으로 보이며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필요

- 더욱이 구 정권하에 석유개발 연고권을 가진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이 반전국가로서 당분간 이라크 석유개발에 뛰어들기 어려운 시기임을 적극 활용
- Down Stream 분야에도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데 이라크 정부는 정유 부문이 재정에 가하는 압박을 완화 하기위해 10억불을 들여 기존 정유공장 3개소를 업그레이드 하고 27.5억불을 투입하여 신규 정유공장을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우리기업은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정유공장 및 석유화학 플랜트 분야 입찰에 적극 대비해야 함

작성자

- | | |
|--------------|-----------|
| ■ 중동아프리카지역본부 | 전병제 부장 |
| ■ 바그다드무역관 | 김규식 관장 |
| ■ 이스탄불무역관 | 장수영 과장 |
| ■ 해외조사팀 | 이영희 책임연구원 |

이라크 총선 이후 경제 · 통상 전망 및
활용전략

발행인 : 채 훈

발행처 : KOTRA

인쇄처 : 학림사 02)752-0463

발행일 : 2005년 2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9
(우 137-749)

전 화 : 02)3460-7114(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Copyright © 2005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